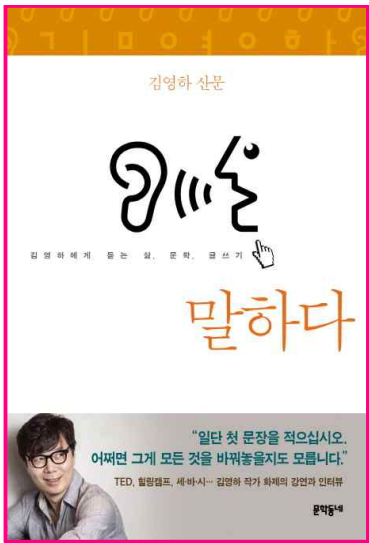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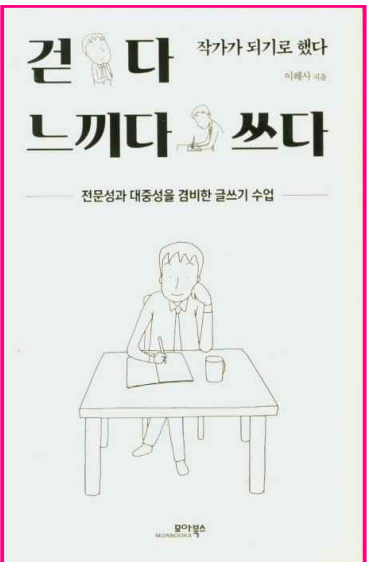
화성으로 날아간 작가

모든 글은 결국 똑같은 진실들을 되풀이한 것이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데 모든 것이 들어 있다. 피하거나 담아두기만 해서는 안 되며, 걱정적인 자기발견을 해내야 한다. 작가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쓴 소설들을 이야기한다.



말하다

작가가 데뷔 이후 지금까지 해온 인터뷰와 강연, 대담을 완전히 해체하여 새로운 형식으로 묶었다. 글쓰기를 중심으로 문학과 예술 등 문화 전반에 이르는 작가의 생각들이, 때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때론 작가 특유의 위트와 재치가 맞물리며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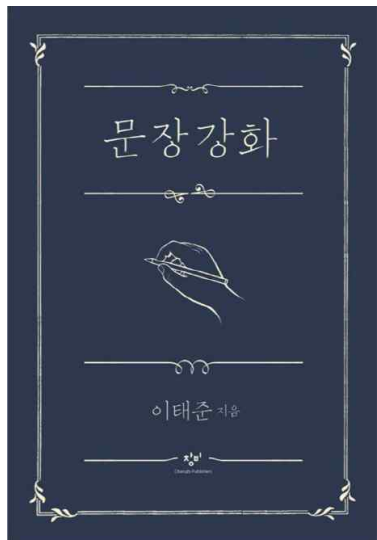
견다 느끼다 쓰다

여전히 글쓰기가 두려운 당신에게 책 쓰기 특급 노하우! ‘어떻게 쓸 것인가’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가’를 목표로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글쓰기,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글쓰기 전문가가 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친절한 글쓰기 안내서이다.



30일 인문학 글쓰기의 기적

저자는 이 책에서 ‘30번의 필사, 30일의 질문, 30개의 단어’만 있으면 충분히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 좋은 글을 필사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만들고 이에 답하며,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의한 단어를 차곡차곡 쌓아 가는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문장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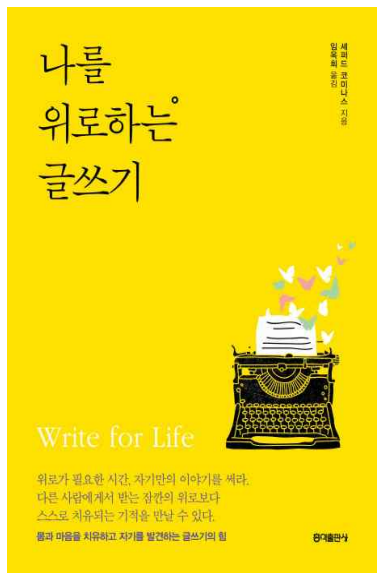
50년 세월 속에서도 빛이 바래지 않은 생생한 문장론을 담은 고전이다. '글을 어떻게 써야 하나?'라는 주제를 내걸고 거기에 관해 진지하게 강론한 내용이다. 글을 아름답게 꾸미려는 태도를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가장 좋은 글쓰기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는 이 책에서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서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글쓰기 비법을 40가지로 정리한다. ‘독자와 교감하라’, ‘메모하라’, ‘제목에 붙여라’ 등의 글쓰기 방법을 독특하고 흥미진진한 에피소드와 함께 제시한다.

9월의 테마 : 나를 만나는 글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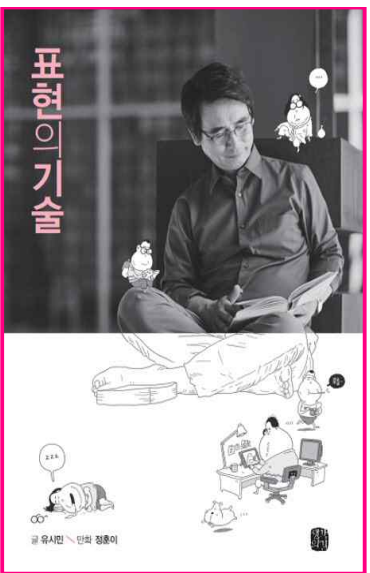
나를 위로하는 글쓰기

이 책은 글쓰기가 갖고 있는 위로와 치유의 힘에 주목하고, 그것을 자기 발견의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집필된 책이다. 작가는 육체적 건강의 유지, 일상적 활동을 통한 즐거움의 발견, 새로운 삶의 설계 등을 위한 일생의 글쓰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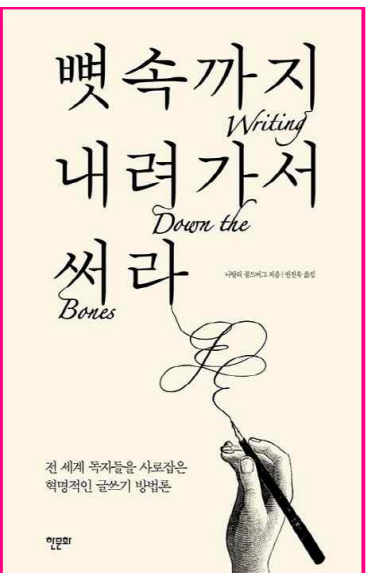
책 한번 써봅시다

이 책은 작가의 마음가짐에서 시작해 소설과 에세이, 논픽션과 칼럼 쓰기에 이르기까지, 기자에서 소설가, 에세이 작가, 논픽션 작가를 넘나들며 매년 꾸준히 2200시간 이상을 책 쓰기에 전념 중인 작가의 ‘30가지 실전 책 쓰기 기술’을 모조리 담았다.



표현의 기술

작가는 글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토론하기, 안티 대응 등,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궁극점에 대해, 그만의 ‘표현의 기밀’을 아낌없이 전수한다. 여기에 더해 어디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만화가 특유의 위트 있고 진솔한 삶의 여정을 통해 작가만의 ‘표현의 기술’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뻗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하고, 글을 쓰게 하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이루어 내도록 하는 방법을 총망라한 책이다. 단순히 글을 쓰는 기술을 넘어, 자신을 발견하는 글쓰기를 제안한다.